학문과 지식의 틀짜기 작업

百科事典 출판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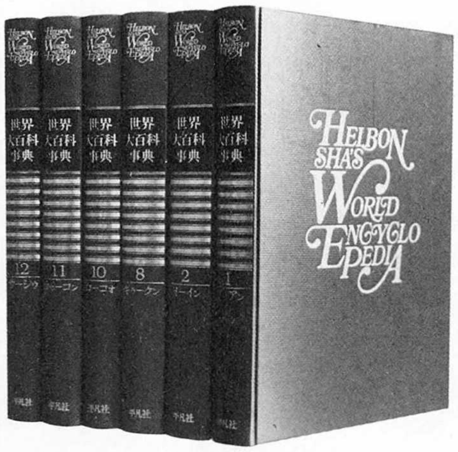
龍澤 武
일본 平凡社 취체역 서적부장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인 백과사전의 역사는 금세기 초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창업이래 70여년의 긴 세월에 걸쳐 최대 규모의 백과사전의 편찬·개정 사업을 계속해온 것은 오직 平凡社 뿐이다.

현대 일본에는 무슨 무슨 '백과'라고 일컫는 책이나 잡지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간편한 지식을 솜씨 좋게 망라한 출판물'이라는 의미로서의 '백과'라는 말은 거의 완전하게 현대 일본어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통명사로서의 '백과'가 아니고, Encyclopedia 즉 전문연구자에게 전유되어 있는 당대의 고도한 지식의 전체계를 일반사회의 독자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대규모의 백과사전은 평범사의「新世界大百科事典」35권을 포함하여 현재 일본에는 겨우 3개가 있을 뿐이며, 또 平凡社의 역사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항목을 선정, 백과사전을 편찬한 것은 겨우 3회 뿐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백과사전 편찬이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백과사전은 말하자면 극한이랄 정도의 많은 집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방대하고도 복잡한 편집·인쇄의 작업과정을 처리해야 하고, 완성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사업인 것이다.「新世界大百科事典」의 경우, 전문편집위원만도 3백명이 훨씬 넘고, 집필자는 7천명에 이른다. 1971년 계획에 착수, 10여년을 지나서 겨우 완성되었다. 그동안 平凡社는 두번에 걸쳐 경영위기를 맞았었다.

당대의 지식의 전체계를 일반독자에게 전하는 대백과사전은 자주 편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이나 지식의 '틀짜기'의 커다란 전환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때, 그때가 백과사전을 새롭게 편찬해야 할 시기이다.



일본 平凡社가 펴낸「세계대백과사전」

그러나 대백과사전의 간행이 일본의 출판사상 그 수가 적은 이유는, 이와같은 물리적·물질적인 차원으로만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백과사전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여러번 새롭게 편집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학문이나 지식의 틀짜기(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이라고나 할까)의 커다란 전환이 전영역에서 일어날 때, 그 때가 백과사전을 새롭게 편찬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그 지적 틀짜기의 전환은 학문과 예술도 결국 그 일부인 사회 전체, 시대 전체의 커다란 전환과 連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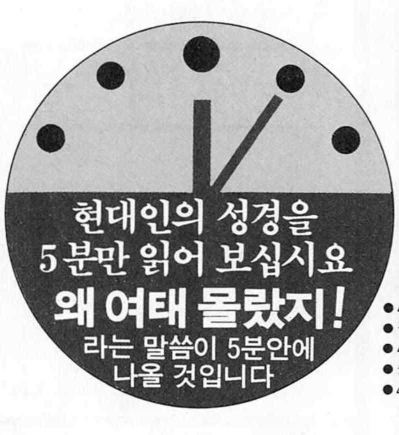
1971년에 「新世界大百科事典」에 착수한 것은, 평범사가 제2차대전 패전 후에 그것도 10여년이나 걸려서 편집한「世界大百科事典」의 틀짜기가 기본적으로 옛것이 되었다는 인식에서였다. 학문의 고도화, 분야별 세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記述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 안가서 낡은 것이 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현상적 차원의 문제로서, 개정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1950년대 말기에서 60년대를 통하여 일본은 미증유의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이것이 일본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만은 아니다. 그것은 전통사회를 심층부에서 해체하여 그의 모든 가치를 붕괴시킬 정도로 격렬한 것이었다. 과학기술의 혁신 자체도, 예컨대 공해문제에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正負 양면을 갖는 복잡한 문제인 것은 명백했다. 게다가 60년대를 통하여 일본과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 자체도 그 이전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와같은 내외의 대전환 속에서 학문과 지식의 존재양식이 근본부터 다시 검토되게 되었다.

「舊世界大百科事典」은 전전·전중에 억압되어온 자유로운 학문연구가 패전후의 해방적 분위기 속에서 단숨에 개화하는 가운데 편찬되었다. 학문·예술의 전영역에 공통되었던 것은,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서구 근대를 말하자면 인류의 도달점으로 삼는 이상주의였다. 그러나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과학·기술을 포함한 서구의 근대 모델의 지적 체계 자체를 심각히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령 人文科學의 영역에서는 구백과사전의 서구 편중을 고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고, 또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는 세분화된 기술의 지엽이 아니라 그 인식방법 자체를 문제로 삼는 등,「新世界大百科事典」 편찬계획은 학·예술의 전영역에 걸치는 지적 틀짜기의 재검토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일본의 학·예술계가 平凡社의 제안에 일제히 찬성한 일은 학문세계의 문제로서나 이 시기의 일본사회의 전환을 얼마나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백과사전은 한 나라 문화의 標識'라고 말한다. 그 나라의 학·예술의 전영역에 걸쳐 가장 우수한 부분을 결집하지 않으면 백과사전은 불가능하다. 우리 백과사전이 80년대 이후의 일본문화의 내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지, 내외 독자의 비판을 기대하고 싶다.

*이 글은 지난 제17호의 '사전 특집'에 기고해온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했기에 이번 호에 실립니다.

현대인의성경



●46판 비닐양장 5,000원 금박가죽 8,000원
●국반판 비닐양장 3,000원 금박가죽 6,000원
●46판(신약) 1,600원
●중판(신약) 1,000원
●46반판(신약) 500원

생명의말씀사
서울·종로구 신문로2가 1-151
TEL : 738-6555